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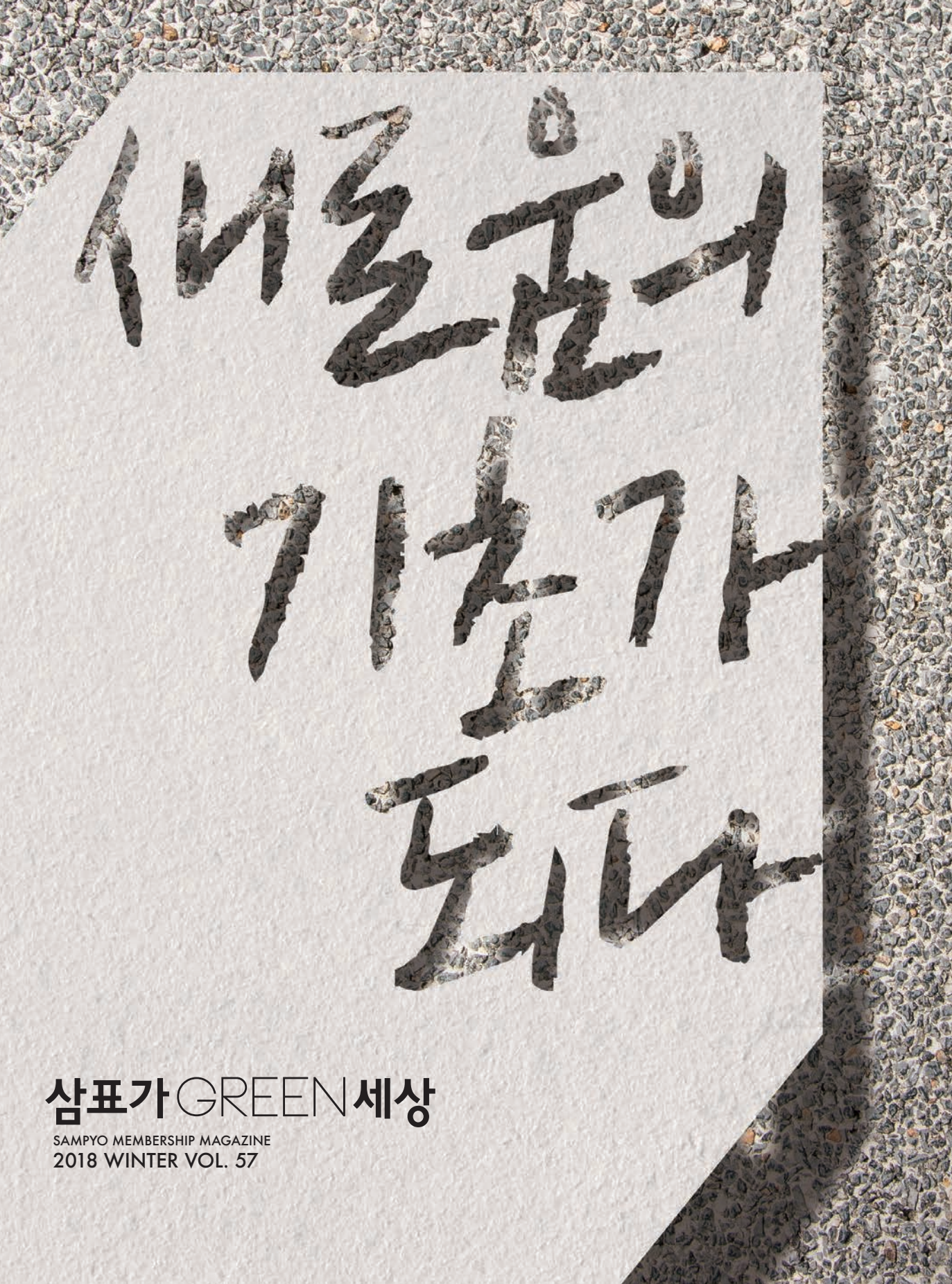
삼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추억을 반추하기도 하고, 새로운 한
해의 도전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쉼이 쌓아
온 추억 위에 새로운 기억을 더할 때입니다. 그룹 사
보도 신년을 맞아 삼표인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
가려 합니다. 올해도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SPECIAL THEME
온고지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HOT ISSUE
삼표기초스케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다!

문화
PC 설계 전문 계열사, 삼표피씨엔지니어링㈜



삼표가 GREEN 세상
SAMPYO MEMBERSHIP MAGAZINE
2018 WINTER VOL. 57



2018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갑시다

친애하는 삼표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저마다의 꿈과 희망이 더욱 풍요로워질 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외적으로 많은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 산업 부문에서도 또한 여러 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바닷모래, 미세 먼지, 지역 자원 시설세 등 환경 정책의 강화 추세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건설 투자 심리 위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그룹은 4년 연속 최고 실적이자, 그룹 창사 이래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랜 기간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삼표그룹이 더 새롭고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는 전반적인 호황을 이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과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대응하고 적응하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 자금 금융제도의 제한, 경제 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으로 인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염려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장 전망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는 그동안의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지혜와 경험을 살려, 시장을 선도해나간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현재 시장 환경은 과거에 단순 투자와 생산 판매에 주력했던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이 필요한 수요를 선
도적으로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영업화로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축적한 각종 생산·영업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
용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미래 고객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합니다.

미국의 GE그룹은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미래에 변화를 예측하고 자사 제품 고객에 대한 추가 서비스업
으로의 혁신적 전환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도 건설자재사업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우리의 핵심 능력을 정확히 인식해 변화
하는 미래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부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야 미래 고객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 부문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지식과 기술 학습에 집중해
서 단순 제조업이라는 현재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고객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기업으로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그룹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발
전하고 차별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 분야의 생산 공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자동화 및 관리 능력 향상에도 총
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개발 기술의 표준화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표준화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품
질만족지수 KS-Q티를 7년 연속 수상하며 소비자로부터 더욱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표준화와 관

리 능력은 생산의 효율성과 제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두의 역량을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삼표그룹은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를 슬로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움'
을 만들고 전 사업 분야의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기초'가 되기 위한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주
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R&D 및 기술 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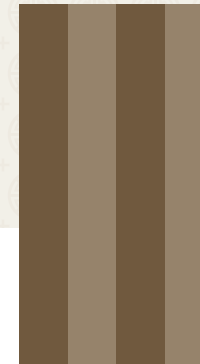
최근 들어 경쟁사들이 M&A와 신제품 개발, 시장 확대 등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도 업계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품질, 고부
가가치의 차별화된 신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각 개 계열사별 경영 혁신을
통해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열사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직계열화의 강점을 최대한 끌어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더욱 견고
하게 다지는 동시에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도 최
선을 다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삼표인으로서의 변함없는 자부심과 열
정, 끊임없는 소통과 자기 개발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



정 대 현
대 표
취 임 사



삼표의 도약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삼표시멘트 임직원 여러분. 2018년의 시작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삼표레일웨이, 삼표기초소재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근무했으며, 지난 2015년 10월 22일부터 삼표시멘트의 부사장으로 2년여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있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삼표시멘트의 대표이사로서 처음 이 자리에 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올해는 삼표시멘트가 대한민국 최초의 시멘트 공장으로 시작된 지 61년이 되는 해이자 삼표그룹의 일원으로서 4년 차가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삼표시멘트 임직원 여러분. 1957년 대한민국 최초의 시멘트 공장으로 시작한 삼표시멘트는 삼척시와 함께 성장하여 아시아 최대의 공장이라는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운 경영 상황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삼표그룹과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에 불어 닥친 인수·합병으로 인해 격심해진 가격 경쟁은 수익성에 한계를 주고 있으며, 경쟁사들의 대형화로 인한 부담, 그리고 건설업계에 불황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 등 경영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탄소배출권 등 환경 정책의 강화와 지역 자원 시설세 부과 압력 등 새로운 원가 상승 요소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원점에서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삼표시멘트 가족 여러분. 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삼표시멘트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 기조로서 기본에 충실한 회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객 가치 창조와 실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힘써 고객의 신뢰를 받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 지향적인 다양한 제품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정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성장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규칙과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질 때 생산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내적으로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방 관리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 돌발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표그룹은 최근 슬로건으로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움을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며, 그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 충실할 때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원칙과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과거 레미콘사와 건설사에만 집중했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객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 영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삼표그룹의 역량을 활용해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업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잘함과 못함을 구분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못한 것은 반성하고 개선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발전도 도약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며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을 발휘해나갈 때 삼표시멘트

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간의 위기 속에서 위축된 분위기와 침체된 조직 문화를 활기차고 열정이 살아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나부터 변화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여 이러한 변화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갈 때 삼표시멘트가 '내 회사', '우리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겠다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삼표시멘트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통해 혁신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어가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하는 기업만이,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회사 내에 그 어떠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노사가 화합해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척 공장 내의 여러 자회사와 협력사의 제반 제도를 현실에 맞게 표준화하여 합리적이고 발전된 운영 방안을 함께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삼표시멘트의 도약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삼표시멘트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취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표시멘트 대표 정대현

WWW.SAMPYO.CO.KR

발행일 2018년 1월 17일(계간·비매물·사내한·통권 57호)

발행인 남병규 편집인 이소정

발행처 ㈜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전화 02-6270-0767

편집·디자인 네오메디아

인쇄 영은문화사

경영진 메시지 1

2018 신년사

경영진 메시지 2

㈜삼표시멘트 정대현 대표 취임사

SPECIAL THEME

온고지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THEME TALK! TALK!

삼표인, 온고지신을 실천하다

㈜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삼표해운㈜ 선박운항팀 김종하 선임사원

THEME PRISM

퓨전 국악의 오늘을 만나다

HOT ISSUE

삼표기초소재㈜,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다!

꿈과 꿈

PC 설계 전문 계열사, 삼표피씨엔지니어링㈜

SOS

㈜삼표산업 환경안전팀, 환경안전표어 제작

삼표의 어제와 오늘

삼표그룹의 뿌리, 골재사업부

원데이 클래스

할아버지와 아빠가 만드는 아주 특별한 선물

㈜삼표산업 안양공장 생산팀 민인식 팀장
㈜삼표산업 서부공장 품질팀 최쾌남 사원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 지식

근대 한옥 건축왕, 기능 정세권

포토 이벤트

반려견, 네가 있어 참 행복해

즐거운 밥상

지역별 명절 음식 기행

TOPIC & NEWS

삼표인 소식

QUIZ & NOTICE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02

06

11

12

16

18

22

26

28

30

32

34

36

38

46

47



THEME TALK! TALK!

어제를 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험 없이 달려가는 삼표인의 이야기. 오늘도 삼표인의 멋진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HOT ISSUE

현재 우리 그룹은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표기초소재㈜ 신사업팀을 만나 태양광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꿈과 꿈

18명의 정예 요원들이 활약하고 있는 삼표피씨엔지니어링㈜. 앞으로 PC 설계의 새로운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길 응원합니다.



원데이 클래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할아버지와 아빠가 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던 원데이 클래스 현장을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신년호에서는 오탈자 찾기를 진행합니다. 글자 한 개당 1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증정! 각 오탈자의 최초 접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니 오탈자를 발견하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완성도 높은 〈삼표가 GREEN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문의 및 접수 : 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

溫故知新

온고지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글 김태현(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 부소장)

본질을 찾아가는 물음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선 언제나 창조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수업 기술을 새롭게 연마하고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동영상 자료,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제 고유의 특징을 버리고 유행하는 수업 기술만을 쫓아가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교사라는 역할의 본질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과거와 오늘의 내 모습을 살피고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저의 수업은 예전보다 더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우리 성현들은 새로워지기 위해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옛것을 익힌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과거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었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내 삶의 미래는 결국 내가 살아온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혁신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변화의 주인이 되어 자기만의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시각을 잃지 않는 태도니까요.

삼표인,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실천하다

옛것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것을 아는 온고지신의 정신은 업무에서도 적용된다.
옛것과 새것을 아우르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삼표인을 소개한다.

글·사진 홍보팀 김선영

삼표그룹 10년 근속자가 말하는 “그땐 그랬지” (주)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2018년 새해와 함께 입사 10주년을 맞이한 서동욱 과장에게는 입사 때부터 간직해온 물건이 있다. 10년 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찍었던 이력서 사진과 삼표그룹에 지원하며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입사 후 받은 첫 명찰이 바로 그것. 이번 호에서 서동욱 과장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통해 신입사원 시절의 초심을 돌아보고 (주)네비엔과 함께 성장한 지난 10년을 회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Q 입사 10주년을 맞은 장기 근속자로서 입사 지원 당시 찍었던 이력서 사진과 옛날에 사용했던 명찰을 다시 본 소감이 궁금합니다.

머리 길이가 짧았던 이력서 사진을 보니 아직 군인 티를 벗지 못했던 것 같네요. 학사 장교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6년 동안 군 장교로 근무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결혼하고 제대 후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돌을 앞둔 아들이 있었어요. 당시 신입사원 지원자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또한 커서 취업이 굉장히 간절했었죠. 그래서 입사 후 처음 사원 명찰을 받는 순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지금 이렇게 10년 전 이력서 사진과 명찰을 보니 사회초년생으로서 열정과 의욕이 넘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Q 입사 지원 시 작성하셨던 자기소개서도 있습니다. 10년 전 자기소개서를 본 기분이 어떠신가요?

‘입사 후 포부’ 항목에 ‘일을 통해 얻는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적은 내용이 눈에 띄어요. 실제로 입사한 그해에 월드비전 정기 후원을 신청했거든요. 그

때부터 10년 동안 매월 3만 원씩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남자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5년 전부터는 아프리카에서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설 보수 봉사를 하고 있는 지인 부부에게 월 2만 원씩 보내고 있고요. 저도 아내와 함께 해외 봉사를 하며 사는 게 꿈이에요. 아내는 이발 기술을 배워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의료 봉사를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Q 10년 전 입사 초기에 보았던 네비엔과 현재의 네비엔은 어떻게 다른가요?

2008년 경한 철스크랩기획팀 입사 후, 2010년에 네비엔 환경기획팀으로 이동했는데, 당시만 해도 네비엔 환경자원 사업부문의 규모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포항공장에서 슬래그 사업, 영천공장에서 소각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두 공장을 다 합쳐도 연 매출 100억 원 수준인 그룹 내 작은 사업부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 확장의 노력으로 현재는 총 10여 개 사업 분야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인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그룹의 핵심 사업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Q 네비엔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네비엔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신규 사업이 단양공장의 슬래그 처리 사업이었어요. 당시 국내 슬래그 시장 규모가 작고 관련 정보가 한정적이라 사업성 검토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10년 전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 자신을 ‘실천가’ 그리고 ‘불도저’라고 표현했는데, 당시를 떠올려보니 시장 조사를 위해 정말 불도저처럼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더라고요. 정보를 얻기 위해 슬래그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직접 자문하고, 매주 3~4일은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며 타 회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 시장을 분석하고 검토, 기획했던 노하우가 지금까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Q 근속 10주년을 맞이하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를 들려주세요.

처음 신규 공장이 가동되던 날, 과장으로 승진하던 날 등 회사 생활을 하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10년 동안 저를 격려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임직원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네비엔은 ‘목표한 대로 계속 성장해온 회사’예요.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연 매출이 10배나 증가한 것은 자원 재활용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비엔이 국내 자원 재활용 사업 분야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선박안전관리자, 인생 제2막을 향한 새로운 도전!

삼표해운㈜ 선박운항팀 김종하 선임사원

6년 항해사 경력과 2급 항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김종하 선임사원이 삼표그룹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항해사였던 그는 현재 우리 그룹의 시멘트 선박과 모래 예인선의 장비 및 설비를 점검하고, 선원들의 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선박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김종하 선임사원으로부터 과거 항해사 시절 이야기와 함께 당시의 경험이 현재 선박안전관리자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Q 항해사에서 선박안전관리자로 직업을 전향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현대상선 항해사로 6년 동안 근무했어요. 전 세계 연안국 중 안 가본 나라가 없을 만큼 수많은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었지만, 일반 직장인처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30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항해사 일을 하면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동료들이 다치는 경우를 보면서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안전이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마침 저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선장님과 기관장님께서 안전 관리 일을 한번 해보라며 추천해주셔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우리 그룹의 선박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시멘트 선박과 모래 예인선을 대상으로 월 1회 자체 점검을 하고 항만수산청과 한국선급이 시행하는 의무 안전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현장에 나가 인명 및 장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수습 활동을 하고, 이후에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 그에 맞는 운항 수칙과 사고 예방법을 매뉴얼로 제작합니다. 이를 선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선박안전관리자는 우리 그룹의 제품을 목적지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Q 그렇다면 항해사 경력이 선박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기 위해 VDR(Voyage Data Recorder, 선박용 블랙박스)을 확인하는데요. 저는 항해사로서 배를 직접 운항하며 여러 위험한 상황을 겪어봐서 그런지 블랙박스만 봐도 사고 당시 상황을 남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순간에 선원이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선원들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애로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당사의 선박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우리 그룹은 작년부터 해운물류사업 강화를 위해 꾸준히 선박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에는 직접 중국에서부터 선박을 인수하여 운항해온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항해사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해사 시절 3번이나 배를 인수한 경력이 있어요. 이번 인수는 총 10일 일정이었는데, 운항을 해오면서 모든 장비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배를 타서 그랬는지 뱃멀미를 심하게 해서 10시간 동안이나 기절해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어요. 돌아와서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 업무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기에 매우 뿌듯했습니다.



Q 선박안전관리자로서 겪는 어려운 점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선박안전관리자는 선박과 관련된 법규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이 내용을 선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접해보지 않아 생소한 법률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아침 한국선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법을 찾아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선박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나 정기 총회 등 대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계획이에요. 업계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동향이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선박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원들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올 한 해 무사고를 달성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신선한 빛깔로 매력 발산! 퓨전 국악의 오늘을 만나다

전통 국악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퓨전 국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신선하고 참신한 장르로 평가받고 있는 것. 날로 진화하고 있는 퓨전 국악의 세계로 초대한다. 글·사진 제공 한동운 음악평론가

최근 해외 음악 시장에서 우리나라 퓨전 국악 장르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살짝 부풀려서 표현하면 또 다른 한류라 할 만하다. 국악기로 록을 들려주는 밴드 ‘잠비나이’는 미국의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영국의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등 유서 깊은 콘서트에 출연했다. 2017년에만 수십 차례 외국 공연을 했을 만큼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KBS <TOP밴드>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인 ‘고래야’ 또한 유럽과 북미의 여러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을 주축으로 결성된 ‘블랙스트링’은 독일의 유명 재즈 레이블과 계약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대중들의 눈길을 애타게 갈구했던 퓨전 국악 밴드들이 외국에서는 이처럼 융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기존 서구 대중음악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신선한 빛깔을 지닌 덕이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뽐내는 퓨전 국악 밴드를 소개한다.



국악과 록 사운드의 결합

잠비나이

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 중 가장 돋보이는 팀은 잠비나이이다. 이들의 음악은 거문고, 해금, 피리 등 우리 전통악기로 빛어내는 거칠고 음산한 록 사운드로 진한 여운을 남긴다. 록 음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문고가 곡을 이끄는 ‘소멸의 시간(Time of Extinction)’과 언더그라운드 래퍼 이그니토의 래핑이 형이상학적인 느낌을 주는 ‘Abyss(무저갱)’ 등은 잠비나이의 ‘음침한 광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곡이다.



구수함과 경쾌함의 조화

쌍쌍

1990년대 후반 자유분방한 형식의 곡과 독특한 가사로 인디 음악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던 어어부 프로젝트 출신의 장영규가 이끄는 쌍쌍은 퓨전 국악계의 떠오르는 별이다. 이들은 민요를 록 음악에 담아 구수함과 경쾌함을 동시에 발산한다. ‘청춘가’는 같은 제목의 경기 민요를 살랑거리는 반주에 담아 핑키함을 표출하며,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에서 불린 민요를 바탕으로 한 ‘사시랭이소리’는 베이스 기타를 부각한 빠른 템포의 반주로 시종 탄력을 유지한다. 곡들이 띠는 분위기가 흥겹기도 하지만 팝 음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민요 특유의 창법은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으뜸 요소가 됐다. 2017년 9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쌍쌍의 15분 남짓한 공연 영상은 두 달 만에 조회수 90만을 훌쩍 넘겼다.



‘난감하네~’의 주인공

프로젝트 락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출연자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소리꾼의 목소리로 “난감하네~!”라는 창이 흐르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제법 많을 듯하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 프로젝트 락이다. 2009년 출시한 데뷔 앨범 <Beautiful Days>에 수록한 ‘난감하네’는 판소리 ‘수궁가’를 토대로 만들었다. 노래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용왕에게 특효가 될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 출장에 떠밀린 별주부의 막막한 심정과 녹록지 않은 여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흑인 음악 리듬과 국악기 연주를 촘촘하게 엮은 반주는 현대성과 역동성을 겸비해 가볍게 다가온다. 앨범에는 ‘난감하네’ 외에도 예스러운 서정미를 띤 ‘사랑가’, 목가적 풍경을 간직한 ‘Beautiful Days’ 등 듣기 좋은 노래가 가득하다.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다

비단

2014년 데뷔한 여성 5인조 밴드 비단은 한국 전통문화 선전을 활동 방향으로 정해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들의 이름 로고에는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다’라는 표어가 함께 기재돼 있다. 그 강령이 무색하지 않게 2017년까지 발표한 석 장의 비정규 음반과 한 편의 싱글은 모두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이나 위인을 소재로 해서 제작했다**. ‘출사표’(훈민정음), ‘만월의 기적’(조선백자), ‘가락지의 꿈’(논개), ‘이여 도사나’(제주도 해녀) 등 비단은 꾸준히 한국의 얼을 되새김질한다.

삼표기초소재(주),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다!

우리 그룹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동안 공장 지붕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온 삼표기초소재(주)는 지난 12월, 천안슬래그 공장, 인천물탈 공장, 화성물탈 공장 세 곳에서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앞으로 삼표기초소재(주)는 태양광 사업 진출을 통해 공장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글 홍보팀 이소정 사진 조은정(C Studio)



대규모 공장이나 광산의 경우
부지가 넓고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삼표기초소재
신사업팀은 이러한 지형적 강점을
태양광 사업에 적극 활용했다.

태양광 사업 진출로 새롭게 도약하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 당사국의 지구온난화 방지 의지를 담은 합의문 '파리협정'이 최종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에 해당하는 3억 1,500만 톤을 감축하기로 약정했다. 특히 발전을 비롯한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극히 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그룹은 지난 2016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삼표기초소재 천안슬래그 공장, 삼표산업 인천물탈 공장, 삼표산업 화성물탈 공장 총 세 곳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은 연간 약 278kW. 이는 하루 평균 270가구, 총 1,0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삼표기초소재는 연간 약 14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40톤 감축하면 어린 소나무 약 5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구하는 우리 그룹으로서 금번 신사업 진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이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셈이다.

유휴 부지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이다

태양광 발전이란 발전기의 도움 없이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태양전지를 여러 개 연결해 만든 모듈에 빛 에너지를 비추면 전지에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이다. 태양광은 발전 지역의 기온, 일조량 등 지형적 특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지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00여 개의 사업장과 골재 석산, 시멘트 광산을 보유한 우리 그룹으로서는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대규모 공장이나 광산의 경우 부지가 넓고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삼표기초소재 신사업팀은 이러한 지형적 강점을 태양광 사업에 적극 활용했다. 우리 그룹의 사업장 중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월간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일조량이 풍부한 천안슬래그 공장, 인천물탈 공장, 화성물탈 공장 세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었다.

우리 그룹 태양광 발전소의 특징은 공장이나 주차장 지붕 등 기존 건축물의 유휴 부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천안슬래그 공장, 인천물탈 공장, 화성물탈 공장으로서의 공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50% 추가로 획득할 수 있어 전력뿐만 아니라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삼표기초소재의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 원가는 절감하고 판매 수익은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 :** 총 발전 설비 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 사업자로,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직접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는 발전 사업자는 당사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삼표그룹의 도전은 계속된다

앞으로 삼표기초소재 신사업팀은 지난 10개월간의 신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한 '태양광 발전소 운영 매뉴얼(Operation & Maintenance)'을 제작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사업팀은 이번 매뉴얼 제작을 통해 발전량이 급락하는 등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그룹은 이러한 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해 태양광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덕분에 추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금번 태양광 사업을 필두로 향후 우리 그룹은 다양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우리 그룹이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사뭇 기대된다.



1. 지난 10개월간 태양광 사업의 기반을 다져온 삼표기초소재(주) 신사업팀
김승배 팀장(좌), 박준형 대리(우)
2. (주)삼표산업 인천물탈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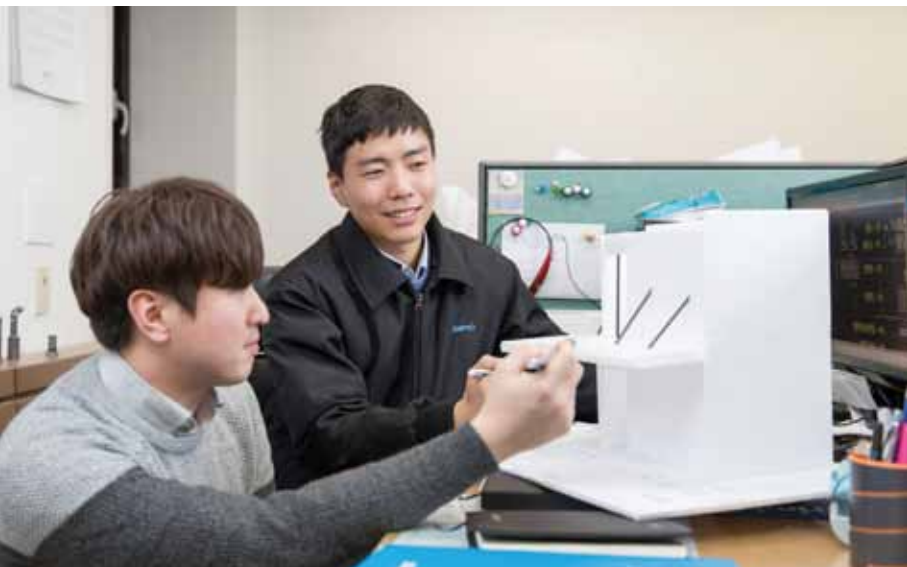
국내 PC 설계 시장의 선두를 꿈꾸며 삼표피씨엔지니어링(주)

지난 2016년 9월, 우리 그룹은 PC 설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설계 전문 계열사 삼표피씨엔지니어링(주)을 설립했다. 금번 삼표피씨엔지니어링(주) 설립을 발판 삼아 앞으로 우리 그룹은 PC 설계부터 생산, 시공, 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콘크리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글 홍보팀 이소정 사진 남승준(BP Studio)



국내 PC 설계 시장을 이끌 주역들



삼표피씨엔지니어링 설립으로
우리 그룹은 업계 최초로
'설계-생산-시공-관리'의
'종합설계서비스(PMIS)'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되었다.

업계 유일의 설계 전문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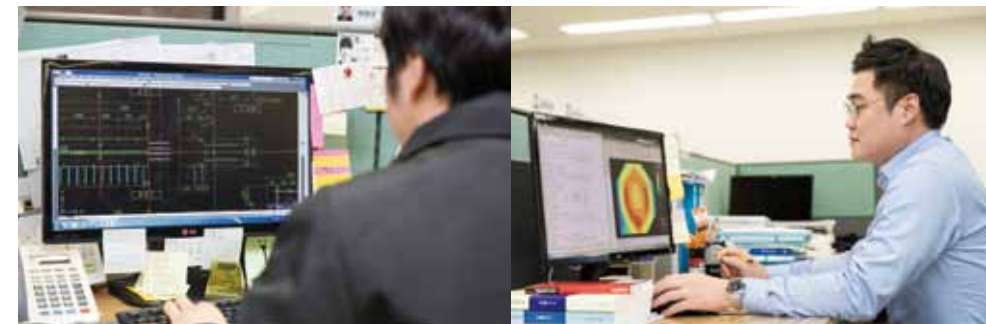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 그룹은 국내 콘크리트 시장의 마켓 리더로서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성장을 견인해왔다. 국내 최초로 대구경 파일을 도입했고, MDW(Mega Double-Wall)* 등의 신기술을 개발해 업계에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우리 그룹이 지난 2016년,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업계 최초로 PC 설계 전문 계열사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을 설립한 것이다. 국내 PC 제작 업계에서 자체 설계 전문 조직을 갖춘 회사는 당사가 유일하다. 덕분에 우리 그룹은 업계 최초로 '설계-생산-시공-관리'의 '종합설계서비스(PMIS)'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MDW(Mega Double-Wall) : 높이 10m 이상의 대형 공간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대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체로, 삼표피앤씨에서 2016년 개발에 착수, 성능 실험을 완료했으며 현재 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에 적용 중이다.

구성원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온 덕분에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은 우리 그룹
콘크리트 사업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18명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은 설계관리, BIM, 구조설계, R&D의 네 부서로 인력을 배치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했다. 설계관리팀과 구조설계팀은 외부 업체의 설계 도면을 검수해 비용을 낮추고 품질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 R&D팀에서는 새로운 PC 공법을 개발하고 검증해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상층 더블월 기법의 실용화를 위해 지난 12월에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인증을 취득했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팀은 기존 평면 도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차원 입체 도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면을 입체로 구현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도면에 담을 수 있어 실제 시공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은 앞으로 3D 도면을 이용한 생산 및 시공 시물레이션을 제작해 시공 오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구성원 개개인이 지닌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 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은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룹 콘크리트 사업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내 PC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지난 12월,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은 지상층 PC 공법을 활용한 설계 및 시공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 람볼(Ramboll)사와 기술 협업 M.O.U를 체결했다. 람볼 본사가 위치한 덴마크에서는 PC 공법을 적용한 지상층 건축물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상층 PC 건축이 대중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지하 주차장이나 물류 창고 등 일부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은 지상층 PC 설계 노하우를 보유한 람볼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상층 PC 상용화를 선도, 국내 PC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국내 PC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제품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삼표피씨엔지니어링과 람볼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가 국내 PC 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은 삼표피앤씨가 수주한 총 26건의 구조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금까지는 삼표피앤씨의 구조설계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타사의 PC 설계를 수주해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업계 최초이자 유일의 삼표피씨엔지니어링이 국내 PC 설계 시장의 성공 신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삼표의 안전을 지킬 한 문장 ‘환경과 안전에는 심표없는 삼표입니다’

아무리 시대적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다.
지난 10월 우리 그룹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그룹 최초로 환경안전표어를 발표했다.
사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금번 환경안전표어는 안전에 대한 임직원의 생각을 반영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모전을 주관한 삼표그룹 환경안전팀을 찾아가 환경안전표어의 탄생 비화와 앞으로의 활용 계획을 들어보았다.

글 홍보팀 김선영

우리만의 안전 표어를 만들다

지난 11월 삼표그룹 환경안전팀은 우리 그룹의 안전 문화 확산과 임직원의 환경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안전표어를 탄생시켰다. 가장 처음 환경안전표어 도입을 제안한 팀원은 한용재 사원이었다. 그는 환경안전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어려운 전문 용어나 상세한 설명보다는 친근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환경안전표어를 사용하고 있어 앞

으로 전 사업장이 통일된 표어를 사용하면 사업부문 간의 일체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평소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임직원의 의식 개선 방안을 고민해온 환경안전팀은 한용재 사원의 의견을 반영해 표어 제작을 추진했다. 환경안전팀에서 직접 표어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사내 공모로 표어를 선정한 이유는 직원들에게 직접 표어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안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그룹 최초 환경안전표어를 제작한 ㈜삼표산업 환경안전팀

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자는 목적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환경안전팀은 '제1회 삼표그룹 환경안전표어 공모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10일 동안 응모 받은 총 43개의 표어 중 1차 환경안전팀 평가와 2차 레미콘 물류운영팀, 골재생산지원팀 등 4개 타 부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표어는 삼표산업 대전공장 공병선 대리의 '환경과 안전에는 심표없는 삼표입니다'였다.

환경과 안전에는 심표없는 삼표입니다

해당 표어가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평소 환경안전팀이 모토로 삼으며 천노수 팀장이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생활 속 안전'과 의미가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안전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매일 같이 자신의 주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항상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환경안전팀의 철학이 당선작 문구인 '심표없는'이라는 단어에 잘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표어에 사용한 두 단어인 '심표'와 '삼표'의 어감이 비슷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표인의 안전 의식을 일깨우다

이렇게 탄생한 환경안전표어는 앞으로 현수막으로 제작된 후, 그룹 내 80여 개 전 사업장에 설치되어 사고 없는 건강한 현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근로자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목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 안전 현수막은 근로자 시야에 가장 잘 들어오는 곳에 설치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자주 접할수록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함양되기 때문이다.

현수막은 사무동, 사일로 등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환경안전팀은 출입문에 게시하는 것을 권장했다. 출입문은 레미콘 믹서트럭, 벌크트레일러 차량 등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곳으로 근로자들이 현수막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또 공장을 출입하지 않는 외부 사람 또한 현수막을 볼 수 있어 우리 그룹의 안전 강화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환경안전팀은 앞으로 해당 표어를 임직원 의식화 교육을 위해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매년 공장장,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부문별 환경안전보건교육에서 표어의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독려하는 등 그룹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그룹의 첫 번째 환경안전표어는 '환경과 안전에는 심표없는 삼표입니다'이다. 2018년에도 삼표그룹은 환경안전팀의 노력과 현장의 실천으로 '전사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해 심 없이 달려나갈 것이다.



1968



한강 모래 채취선



화성 석산

골재사업부의 어제와 오늘 삼표그룹의 뿌리, 수직계열화의 초석을 다지다

1968년 한강 모래 채취를 시작으로 골재 사업에 뛰어든 삼표그룹은 1980년대 석산 골재 사업에 진출해 국내의 도로, 철도, 교량 등의 인프라 건설 공사와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수도권 개발 사업에 골재를 공급하며 업계의 신흥 강자로 부상한다. 이어 2000년대에는 해사 사업에 진출해 종합 골재 채취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오며 우리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온 골재사업부의 어제와 오늘을 따라가본다.

글 홍보팀 김선영

한강에서 골재 사업의 첫 삽을 뜨다

삼표그룹 골재 사업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탄을 수송하던 우리 그룹의 전신 삼강운수는 연탄 비수기인 봄과 가을 사이에 트럭의 효율적 운송을 위해 골재 사업에 뛰어든다. 우리 그룹이 처음으로 모래를 채취한 곳은 한강이었다. 1968년, 모래와 자갈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서울 도심에 위치해 수도권 지역의 건설 현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곳인 성수동 한강변에 그룹 최초의 골재 기지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강모래 채취를 시작한다.

당시 경쟁사들은 수중 펌프를 이용해 원시적인 방식으로 골재를 채취했으나, 우리 그룹은 국내 최초로 드레자¹⁾, 티플러²⁾ 등 기계화된 장치를 이용한 '골재 자동 채취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단숨에 수도권 건설 현장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석권하게 된다. 1970년경에는 풍납동에 두 번째 골재 기지를 세우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양평까지 채취 영역을 확장한다. 그 결과 63빌딩, 무역센터, K-16 비행장, 김포공항 활주로 등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시설 공사 현장에 골재를 공급하며 건설기초소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 1) 드레자 : 강바닥까지 내려가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자동으로 모래와 자갈을 수면 위로 퍼 올리는 장치.
- 2) 티플러 : 모래와 자갈을 실은 배를 수중에서 뒤집는 장치로, 티플러를 이용하면 골재 기지와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로 신속하게 모래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인천 해사 사업소

석산 골재 사업의 절대 강자로 등극하다

1980년대에는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시설 건설 증가로 골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기존의 한강 골재 채취만으로는 늘어나는 골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삼표그룹은 대량 골재 채취가 가능한 석산 골재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 그룹은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안성 석산, 서쪽에는 파주 석산, 남쪽에는 화성 석산, 북쪽에는 양주 석산을 개발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수도권 전 현장에 골재를 운송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다. 그 당시 소규모 석산이 대부분이었던 국내의 석산 골재 시장에서 삼표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석산 4개 단지를 개발해 방대한 양의 골재들을 공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독보적인 골재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그룹은 1980년대 88올림픽을 대비한 각종 SOC 건설과 주택 200만 호 건설 현장에 골재를 대량으로 공급하며 1980년대 정부의 건설 부양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후 2003년에는 골재 사업 전국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 지역으로 새롭게 진출하며 오늘날의 예산 석산을 운영하게 된다.

해사 사업 진출, 마침내 '종합 골재 기업'으로 우뚝 서다

2001년 삼표그룹은 인천에 해사 사업소를 설립, 바닷모래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진정한 '종합 골재 채취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당시 삼표그룹은 시장의 후발 주자였지만 대규모 예인선과 바지선을 구비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해간다. 특히 2004년 인천 앞바다의 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되어 다수의 경쟁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때, 오히려 우리 그룹은 선박을 추가로 증설하는 등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며 골재 업계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게 된다.

대한민국 골재 No.1 기업, 삼표의 신화는 계속된다

오늘날 삼표그룹은 전국에 6개의 대형 석산과 5개의 발파석, 17개의 해사 사업장을 보유하며 전국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만 연간 1,037만 m³ 이상의 골재를 공급하며 수도권 시장점유율 41%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골재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는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골재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골재의 품질 역시 우리 그룹 골재사업부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오랜 골재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 검사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2006년 화성 석산이 국내 최초로 골재 KS 인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6개의 모든 석산이 KS 인증을 취득해 고품질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또 현재 골재사업부는 수도권, 충청권을 넘어 전국권의 골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경상권으로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올해 우리 그룹은 부산과 김해 지역에 레미콘과 몰탈 공장을 설립하는 등 경상권에서 골재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나갈 방침이다. 한강에서 출발해 우리 그룹의 핵심 사업부로 성장해온 골재사업부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신화를 기대해본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만드는 아주 특별한 선물

(주)삼표산업 안양공장
생산팀 민인식 팀장에게는
아주 특별한 동료가 있다.
바로 지난 2011년 입사한
서부공장 품질팀 최재남 사원.
민 팀장이 최 사원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은 '최 서방', 혹은
'우리 사위'다. 신년호 사보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직장
선후배이자 동료인 장인어른
민인식 팀장과 사위 최재남
사원이 아주 특별한
선물 만들기예 도전했다.

글·사진 홍보팀 이소정



(주)삼표산업
안양공장
생산팀
민인식 팀장

(주)삼표산업
서부공장
품질팀
최재남 사원



가족에서 직장 동료로

두 사람의 인연은 최 사원의 고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아내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난 최 사원은 5년간의 연애 끝에 지난 2011년 웨딩 마치를 올렸다. 사실 처음에는 장인어른인 민 팀장의 반대가 심했다. "우리 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죠." 이야기를 들던 최 사원 역시 고등학생 시절에는 장인어른의 첫인상이 무서워 도망다니기 바빴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랬던 민 팀장이 후에는 큰딸과 최 사원이 결혼하는 데 있어 일등 공신이 될 정도로 최 사원을 아끼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 업계에서 근무하던 최 사원에게 삼표 입사를 추천한 사람도 다름 아닌 민 팀장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오랫동안 다닌 회사'이기에 좋은 회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추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1980년 풍납공장 골재사업소로 입사해 1988년에 안양공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올해로 꼭 30년을 이곳 안양공장에서 근무했다는 민 팀장은 애사심이 남다르다.

"가족 여행 중이라도 공장에서 찾는 전화가 오면 휴가를 반납하고 공장으로 달려가실 정도예요. 회사에 대한 확신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도 그런 직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며 처음에는 반대했던 최 사원의 아내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한 회사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새 식구 위해 한 땀 한 땀 사랑으로 엮은 선물

최 사원은 지난 8월, 셋째를 득남하며 다둥이 아빠가 되었다. 최 사원의 득남은 곧 민 팀장의 손자가 한 명 늘었다는 뜻. 이제 막 뒤집기를 시작했다는 손주 이야기에 민 팀장의 얼굴에는 연신 미소가 떠오른다.

두 사람이 이날 도전한 것은 아들(손자) 강민이를 위한 조끼만들기. 얇은 천을 네 겹으로 겹쳐 두겹게 만드는 조끼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부터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늦봄까지 입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조끼이니 그 특별함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홉 남매로 자라 어릴 적부터 자신의 옷은 직접 꿰매 입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민 팀장. 남성 수강생은 처음이라 걱정했던 강사도 민 팀장의 재빠른 바느질 속도에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반면 학창 시절 '가정' 과목은 진작에 포기했다는 최 사원은 손에 땀이 나서 바느질하기가 어렵다며 "내 손인데 내 손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도 박음질, 공그르기 등을 가르치는 대로 곧잘 해낸 덕분에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조끼를 완성할 수 있었다. 민 팀장도, 최 사원도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민 팀장과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최 사원. 이날 가족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베테랑 아버지 민 팀장도, 초보 아버지 최 사원도 이미 그 바람을 이룬 듯 보였다.



서울 한옥 지구 전경

일제 강점기 조선 서민을 위한 조선집을 짓다 근대 한옥 건축왕, 기농 정세권

연간 국내외 관광객 1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명소 북촌. 그 시초에는 기농 정세권이 있었다. 기농은 일제의 도시 개발에 정면으로 저항해 조선 서민을 위한 집을 지었고, 우리의 전통에 실용성을 더해 20세기형 퓨전 한옥을 구현했다. 기농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전통 한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글 노주석(서울도시문화연구원장) 사진 제공 정희선



정세권(鄭世權, 1888~1965)
1920년대 지금의 익선동 개발을 시작으로 가회동과 삼청동 일대 북촌 한옥마을을 만든 부동산 개발업자. 전통 한옥에 근대적인 생활 양식을 반영한 개량 한옥을 대량 공급하며 조선인의 주거지 확보 및 주거 문화를 개선하는 데 공헌했다.

일제에 맞서 북촌에 한옥 지구를 조성하다

기농 정세권(鄭世權, 1888~1965)은 조선 말기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 경성에 근대식 개량 한옥을 지은 건축가이자 조선인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조선물산장려운동과 <조선어큰사전> 편찬을 후원하며 민족운동에 투신한 애국지사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보고 즐기는 북촌은 기농이 설계하고 건설한 퓨전 한옥 지구이다. 기농은 북촌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한옥 단지를 건설해 서울의 표정을 바꿨다. 1920~1940년대에 시대를 앞선 선각자가 지은 북촌 한옥 밀집 지역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서울은 전통문화의 향기를 간직할 수 있었다. 북촌 한옥 밀집 지구는 현재 서울의 대표 문화유산인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보고 즐기는 북촌은 기농이 설계하고 건설한 퓨전 한옥 지구이다. 기농은 북촌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한옥 단지를 건설해 서울의 표정을 바꿨다.

전통에 20세기형 생활 방식을 더하다

기농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령리에서 태어나 진주사범을 졸업하고 23세 때 하이면장을 지낸 뒤 1919년 31세의 나이에 상경했다. 그는 20평짜리 한옥 2채 값에 불과한 2만 원의 종자돈으로 경성에 '건양사'라는 굴지의 주택 업체를 세웠다. 이후 20년 동안 건축왕으로 군림한 기농이 북촌에 주목한 까닭은 당시 북촌 지역에 빈집이 많았던 탓도 있지만 소비 도시에서 생산과 산업 도시로 변모한 경성으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지방민들이 주택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력을 장악한 일본인들이 서울 사유지의 70% 이상을 차지한 뒤 일본식 문화주택을 지어 주거 문화마저 일본화하려는 것을 막고자 했다. 기농은 왕실과 경화사족의 한옥 부지 400평을 매입해 토지를 분할한 뒤 40평 규모의 작은 한옥 10채를 지었다.

당시 대규모, 대저택이었던 기존 한옥과 달리 기농이 창조한 작은 도시형 한옥은 좁은 면적에 배치와 구조를 효율적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었다. 화장실을 안으로, 부엌을 입식으로, 대청 마루에 외부 덧문을 추가해 거실로 바꾸는 등 20세기형 생활 방식을 고려한 혁신적인 구조 변화가 뒤따랐다. 또 기농은 전통 한옥에 근대적 생활양식을 반영해 6인 가족이 현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택을 선보였다. 특히 그가 구현한 '중당식' 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중정식과 달리 마루 개념의 거실을 중심으로 방들이 모여 공간을 둘러싸는 독특한 구조가 특징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건축왕을 기억하며

정세권식 한옥 개발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점과 표준화, 규격화가 핵심이었다. 1920~1930년대 건양사가 공급한 한옥은 경성 한옥의 35%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전체 기와 한옥 1만 8,000채 중 6,000채 이상은 정세권이라는 고성에서 올라온 기인이 남긴 선물이다. 그가 지은 한옥은 삼청동·가회동·재동·계동·안국동·사간동·소격동·수송동·견지동·관철동·관훈동·익선동·봉익동·관농동·통의동·체부동·사직동·신문로·명륜동·창신동·이화동·신설동·왕십리·행당동·휘경동·충정로에 걸쳐 폭넓게 퍼져 있다.

이는 도시계획사와 도시개발사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선 태종 때 창덕궁과 경희루를 설계하고 지은 박자청 이후 최대의 기념비적인 업적이라 할 만하다. 파리를 파리답게 만든 에펠이나 바르셀로나를 빛나게 한 가우디에 필적하는 랜드마크를 서울에 남긴 셈이다. 탁월한 혁신가 한 명이 나라와 도시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려견, 네가 있어 참 행복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한 삼표인 사진을 공모했습니다. 우리 집, 우리 회사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한때, 그 소중한 추억을 공개합니다.

정리 편집실

대상



성길이의 어느 하루! 성길이를 꼭 닮은 강아지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주)삼표산업 개발2팀 이병현 사원

생후 17개월 아이와 개의 한판 승부! 내일은 나도 레슬링 왕! 파테르(일명, 빠떼루) 줘야 합니다!
(주)삼표산업 총무팀 이지용 차장

금상



은상



업동이 유기견 4남매와 함께 산 지 벌써 2년 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세상에 돌도 없는 우리 식구, 황금 개의 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누렸으면 합니다.
(주)삼표산업 회계1팀 류승훈 대리



여름휴가 때 찍은 가족사진입니다. 이때는 셋이었는데 지금은 넷이네요. 진짜 '황금덩어리' 아빠가 됐어요. 태명도 황댕이입니다. 황댕아 잘 부탁해~!
삼표레일웨이(주) 오송공장 김수중 기능



김장하는 엄마를 돕고 있는 땅콩이! 짧은 다리로 참 열심히네요~
삼표피앤씨(주) 콘크리트기획팀 진향림 사원

동상



2년 전 할머니께서 바다를 좋아하셔서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 별이와 서해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지금은 할머니께서 안 계시지만, 사진으로 지난 추억을 되새깁니다.
(주)삼표산업 골재생산지원팀 김동혁 대리



우리 집 꼬맹이 명키. 매일 사고만 치지만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꼬마 아가씨랍니다.
(주)삼표시멘트 자금팀 주환규 선임사원



출퇴근 때마다 반겨주는 우리 사업소 마스크트 오구! 족발을 사줬더니 폴짝폴짝 뛰네요~
삼표기초소재(주) 예산사업소 김동현 사원



유기견 봉사활동에서 제 몸집만 한 삼살개 치노와 산책하다 찍은 사진입니다.
(주)삼표 경영개선팀 강수정 사원



올해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투표를 저의 첫 반려견인 탕이와 함께했습니다!
(주)삼표산업 환경안전팀 황석진 사원

같은 듯 달라 지역별 명절 음식 기행

일가친척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 명절이면 어김없이 그려지는 고향 마을 풍경이다. 이처럼 정겨운 분위기는 전국 어디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으니 바로 함께 나누는 음식이다. 차례상부터 명절 별미까지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명절 음식 열전.

글 백현주

팔도강산만큼 다채로운 차례 음식

서울, 경기도 **고기와 전, 생선이 골고루**
서울, 경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많다. 또 차례상에 꼭 등장하는 음식은 통복어구이. 복어 외에도 굴비, 참조기, 가자미 등 생선류 중 한 가지는 꼭 올린다. 바닷가 지역보다 생선 종류는 적은 편이다.



강원도 **산간 지역 특색 담은 상차림**
강원도 차례상에는 주로 나물이나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를 재료로 한 음식이 오른다. 메밀전, 감자전, 버섯전 등 상에 올리는 전 종류도 다양한데 송이 같은 귀한 버섯은 소적으로 준비한다.



충청도 **다양한 지역 음식이 한 상에**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를 접하고 있어 다양한 음식이 차례상에 올라온다. 경상도 인근 지역에서는 대구포, 오징어포 등 건어물을, 전라도 인근은 말린 홍어, 낙지 등을 준비한다.



경상도 바다를 통째로 옮긴 듯한 차림

명절 대표 생선인 조기뿐만 아니라 민어, 가자미, 방어, 도미 등 여러 종류의 생선이 등장한다. 문어도 경상도 차례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안동의 경우 선비의 고장답게 문어라는 이름에 '文'이 들어 있어 차례상에 올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전라도 남도 음식의 진수를 그대로

전라도 차례상에 삭힌 홍어가 빠지면 서운하다. 전라도 특산 요리인 삭힌 홍어는 제사뿐 아니라 결혼식, 잔칫집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잔치 음식이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낙지, 꼬막, 불불락 같은 어패류도 차례 음식으로 사용된다.



제주도 따뜻한 섬마을의 풍요로움

옥돔, 전복 같은 해산물부터 굴,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이 올라와 특색이 넘친다. 과거 비싼 쌀로 만든 떡 대신 보리빵을 올렸던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차좁쌀로 만드는 오메기술 역시 제주도의 특색 있는 명절 음식이다.



설날 빠지지 않는 음식 떡국 전국 지도

충청남도 구기자떡국

구기자가 지역 특산물인 충남 지역에서는 구기자떡을 만들고 그 떡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는다. 구기자 잎과 가루가 내는 푸른빛과 붉은색으로 눈이 먼저 즐거운 음식이다.

전라북도 두부떡국

닭으로 육수를 내고 두부를 납작하게 썰어 넣어 끓인 전복의 향토 음식 중 하나로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두부와 닭고기의 조화로 영양도 풍부하다.

전라남도 닭장떡국

진한 육수와 간장에 조린 닭고기의 구수한 맛이 감칠맛을 더하는 별미 중의 별미다. 간이 밴 닭고기는 오랜 시간 보관했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떡국으로 끓여내 대접하기도 한다.



강원도 만두떡국

강원도는 예로부터 만두를 넣어 떡국을 끓였다. 진한 사골육수에 고기나 김치 만두와 떡이 조화를 이뤄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충청북도 미역생떡국

미역과 들기름, 들깨 향이 더해져 맛이 진한 편. 풍농을 기원하는 대표 음식으로서 이 지역 대표 별미라 할 만하다.

경상북도 태양떡국(매생이굴떡국)

일반적인 떡국 떡처럼 어썰기가 아닌 동그랗게 썰어 '태양'이란 이름이 붙었다. 여기에 매생이와 굴을 넣어 한층 시원한 국물 맛을 살린 것이 특징.

경상남도 굴떡국

남해와 인접한 경남 지역은 해산물이 풍부해 떡국에 고기 대신 굴을 넣는다. 굴 특유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매력적이다.

TOPIC



㈜삼표시멘트, 정대현 대표이사 취임식 개최

㈜삼표시멘트는 지난 1월 2일 삼척공장 강당에서 임직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현 대표이사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대현 대표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비롯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경영비전과 목표 (▲기본에 충실한 경영 기초 확립 ▲차별화된 영업전략 수립을 통한 수익성 개선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를 통한 사업목표 달성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고객 가치 창조와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 지향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제작 공정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정대현 대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경영 전략 수립과 사업부문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삼표

삼표그룹, '창립 51주년 사랑·나눔 실천 봉사활동' 전개

삼표그룹은 창립 5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시 성북구 정릉골 마을과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일대 소외 계층에 연탄 1만 장을 지원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보육원 '선린애육원'에 700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을 기탁했다.

먼저, 29일에는 ㈜삼표산업 물류운영 담당과 삼표레미콘차주연합회 회장이 경북 포항의 '선린애육원'을 방문해 보육원 아동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항사랑상품권'을 기탁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30일에는 삼표그룹 임직원들을 비롯한 삼표자원봉사

단원 40여 명이 서울시 성북구 정릉골 마을 일대의 독거노인과 조손 가정들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사회공헌 담당 송석훈 상무는 “매년 연말이면 소외 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해왔고, 올해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에도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보람찼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에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그룹,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및 물품 기부

삼표그룹은 지난해 11월 21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 시장 및 (주)경한/(주)네비엔 박영동 대표, (주)삼표산업 박혁규 포항공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지진 피해 성금 및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된 성금 5,000만 원과 드라이 몰탈 700포대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입은 건물 보수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영동 대표는 “삼표그룹은 포항에서 자원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레미콘,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등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당사의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 김해시 진영읍에 '사랑의 쌀' 기부

삼표그룹은 지난해 12월 26일 김해시 진영읍 사무소 강당에서 진영읍 이장단협의회 회장 및 이장, ㈜삼표산업 정성남 김해물탈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금번 행사는 삼표그룹과 김해시 진영읍 지역 이장단협의회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삼표그룹은 진영농협에서 20kg 쌀 200포를 구매해 진영읍 이장단협의회에 기부했으며, 이는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해물탈 공장 정성남 공장장은 "추운 겨울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해 더불어 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삼표산업, '국가표준화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삼표산업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표준화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그동안 ㈜삼표산업은 건설 부문(F)·요업 부문(L) KS 제·개정을 위한 표준안 심의에 참여하며 산업 표준의 제도에 기여해왔다. 또 품질경영시스템(STQM)·원료 검사 등 사내 표준화를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경영 노하우를 34개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등 민간 부문의 표준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삼표산업 홍성원 대표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통해 표준화된 제품 생산 및 품질 향상에 매진해 '마켓 리더'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품질경영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대내외 표준화 활동에 정진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개최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여주시 소재 일성콘도에서 레미콘사업부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5개 권역의 지역 담당자 및 공장장들이 2018년 지역별 레미콘 예상 수요량과 판매 목표, 운영 전략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레미콘본부의 기획, 마케팅, 품질경영, 물류운영, 공장운영, 특수콘크리트영업 각 팀장들이 2017년 실적과 2018년 사업계획 전략을 발표했다.

레미콘사업부 홍성원 대표는 "작년 한 해 레미콘사업부는 역대 최대 출하량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2018년에는 건설 경기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수주 전략과 공장 설립을 통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문 여직원,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펼쳐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문 여직원들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요리학원에서 '사랑의 나눔 DAY'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레미콘사업부문 여직원들의 유대감 형성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봉사에는 레미콘사업부문의 전체 여직원 34명이 참여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반찬 조리과 포장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종로 1~4가 지역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직접 도시락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봉사에 참여한 마케팅팀 객민지 사원은 "부족한 요리 실력이지만 추운 겨울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여직원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베푸는 뜻깊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삼표산업 몰탈사업부,
‘화성몰탈 공장 품질관리동 준공식’ 개최**

㈜삼표산업 화성몰탈 공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삼표산업 몰탈사업부 이성연 대표와 ㈜네비엔 한현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4명과 특약청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관리동 준공식을 가졌다. 금번 건립된 화성몰탈 공장 품질관리동에는 원재료 검사, 부착 강도 테스트 등 최신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어 앞으로 사내 교육을 비롯한 외부 강사 초청 강의를 통해 직원들을 몰탈 전문 엔지니어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성연 대표는 “이번 품질관리동 설립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국내 몰탈 시장에서 품질 혁신을 선도하는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학생 대상 견학 실시

㈜삼표산업 품질경영본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풍납공장에서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품질경영본부는 학생들에게 레미콘 제조 공정, 원재료 및 제품 품질 관리 방법 등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학생들은 풍납공장 실험실에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직접 실습하면서 현장 실무 감각을 익혔다.

이번 견학에 동행한 동양미래대학교 장덕배 교수는 “예비 건축인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준 삼표산업에 큰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견학으로 삼표산업의 높은 기술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 ‘파란 하늘! 파란 꿈!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10월 21일 삼척공장 내 게스트하우스 광장에서 지역 초등학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파란 하늘! 파란 꿈!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이번 글짓기 대회는 삼척 지역의 향토 기업인 ㈜삼표시멘트가 지역 학생들의 문예 창작 능력 배양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미공원’, ‘편지’, ‘사진’, ‘친구’ 4가지 주제로 시 또는 수필을 작성했으며, 이 중 9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영화 상영, 다트, 단체 줄넘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

개회사에서 ㈜삼표시멘트 최병길 사장은 “이번 대회가 참가한 어린이들 모두에게 잠재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삼표기초소재㈜

삼표기초소재㈜, ‘발전 부산물 재활용 3,000만 톤 달성’ 감사패 수상

삼표기초소재㈜는 지난해 9월 29일 한국남동발전㈜이 인천 영흥에너지파크에서 개최한 ‘발전 부산물 재활용 3,000만 톤 달성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표기초소재㈜ 이성연 대표를 비롯, 발전 부산물 처리업체, 환경부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삼표기초소재㈜는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플라이애쉬를 콘크리트 혼화재로 재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받은 이성연 대표는 “금번 수상은 당사의 우수한 기술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발전 부산물 재활용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우리 그룹은 친환경 재활용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레일웨이㈜

삼표레일웨이㈜, 일본 쇼본드(SHO-BOND)社와 ‘철도 유지보수 협력회의’ 개최

삼표레일웨이㈜는 지난해 11월 17일 삼표그룹 본사 이마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건설사 쇼본드(SHO-BOND), 종합상사 미쓰이 물산과 ‘철도 유지보수 기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쇼본드는 앞으로 삼표레일웨이㈜에 철도 유지보수 신기술 제안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쓰이물산은 앞으로 삼표레일웨이㈜와 쇼본드 간의 계약 및 무역 관련 법률 사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삼표레일웨이㈜ 강기동 대표는 “이번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쇼본드와 M.O.U 체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고도의 유지보수 기술을 자랑하는 쇼본드와의 협력으로 당사의 유지보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철도 산업 안전화에 기여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삼표피앤씨㈜

삼표피앤씨㈜, ‘Global 환경안전 혁신대회’ 우수 사례 선정

삼표피앤씨㈜가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2017년 Global 환경안전 혁신대회’에서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날 삼표피앤씨㈜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삼성전자㈜의 국내외 사업장 실무자들에게 MDW(Mega Double-Wall) 공법을 소개했다. MDW는 공장에서 사전에 PC(Precast Concrete) 패널과 PC 연결보를 접합해 현상에 반입하는 공법으로, 기존에 PC 패널과 철재 트러스를 연결하는 DW(Double-Wall) 공법보다 축압에 대한 저항력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삼표피앤씨㈜ 최명식 대표는 “이번 대회는 건설업계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PC 기술력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선진화된 PC 공법을 개발해 국내 PC 건축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한

㈜경한 철스크랩사업부문, 창립 기념 행사 실시

㈜경한 철스크랩사업부문은 지난해 12월 1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도음산에서 창립 기념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회사 창립일을 기념하여 함께 제기차기, 족구, 달리기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며 동료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에는 우수 관리자 및 모범 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한 임순태 대표는 “창립 기념일인 오늘,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도음산에서 임직원 간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초과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018년에도 임직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네비엔

㈜네비엔 환경자원/하역사업부문, 창립 기념 산행 실시

㈜네비엔 환경자원사업부문과 하역사업부문은 지난해 12월 1일 경남 밀양 천황산에서 창립 기념 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에 참석한 임직원 100여 명은 함께 천황산을 등반하며 창립 기념일을 자축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행 후에는 한 해 동안 좋은 실적을 거둔 우수 관리자와 모범 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네비엔 국만호 대표는 “2017년은 대내외적으로 사업 환경이 어려웠지만, 내실 강화와 신사업 진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2018년에도 사업의 선택과 집중, 조직 간의 화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신입 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주)경한	영업2팀 울산	윤세은	6여	2017-10-25
	영업3팀 화성	윤지은	5여	2017-11-30
(주)남동레이몬	광주공장 품질과	최영권	5급	2017-11-13
	동서물류공장 품질과	모던비	5급	2017-09-18
	D/7팀 동부물류영업소(광주출하)	김민상	6급	2017-11-24
(주)삼표	D/7팀 북부물류영업소(연천출하)	이병진	5급	2017-11-24
	D/7팀 서부물류영업소(북인천출하)	임학준	6급	2017-11-24
	삼표파넬씨SM팀	방기환	5급	2017-09-11
	시스템팀	임재국	5급	2017-09-11
	업무분석팀	한민하	5급	2017-11-20
(주)삼표산업	RM2팀	배수진	5급	2017-11-13
	김해물탈공장 건설팀	백지혜	6급	2017-11-24
	송도공장 관리과	신민서	사원	2017-11-24
	안성공장 관리과	홍성완	사원	2017-11-06
	안성공장 품질과	김준우	5급	2017-11-13
	안양공장 품질과	윤철	6급	2017-09-18
	연구소	문병룡	5급	2017-12-04
	오산공장 품질과	강주환	6급	2017-09-18
	원료검사팀	박준우	5급	2017-12-04
	원료검사팀	심승우	5급	2017-12-04

경력 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경한	영업2팀_포항	정성광	대리	2017-12-06
	㈜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 영업과	하종남	5급
		단양생선팀	김경재	5급
㈜내비엔	소각팀	이창민	5남	2017-12-01
	포항공장 품질관리팀	김대성	5남	2017-12-04
	포항공장 생산팀	최세진	6남	2017-11-24
㈜삼표	D/IT팀 동부물류영업소(용인출하)	강현수	5급	2017-11-24
	물류기획팀	오성훈	과장	2017-10-10
	업무분석팀	한만규	고문(상근)	2017-09-18
	업무분석팀	한형진	차장	2017-09-18
㈜삼표산업	IT팀	허정	차장	2017-12-04
	골재부문	이원태	고문(상근)	2017-10-10
	김해물탈공장 건설팀	이성호	차장	2017-11-23
	사업개발팀	김건용	부장	2017-11-20
	서부산공장 영업과	윤준호	5급	2017-12-04
	서부산공장 영업과	정훈	과장	2017-11-01
팬트랙	양주공장 관리과	이종우	주임	2017-11-06
	연구소	김래환	5급	2017-12-04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심훈석	주임	2017-11-01
	연마유지보수팀	김란민	사원	2017-10-10
	연마유지보수팀	이승구	사원	2017-10-10
	연마유지보수팀	이광성	사원	2017-10-10
삼표피세먼지아워링㈜	구조팀	이유주	차장	2017-12-05
	연서사업소 중기팀(생산)	이길호	주임	2017-10-23
삼표기초소재㈜	연서사업소(관리)	정병준	5급	2017-09-18
	연현사업소(생산)	송정진	사원	2017-11-06
	이동정비	송수철	계장	2017-09-22
삼표레일웨이㈜	해외영업담당	김진호	사무보	2017-11-06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주)삼표산업	원료검사항팀	안선호	5급	2017-12-04
	인전공장 품질과	고석찬	5급	2017-09-18
	평택공장 관리과	원현국	사원	2017-09-18
	화성공장 품질과	이광로	6급	2017-09-18
	화성물류공장 생산팀	이민영	사원	2017-11-01
(주)엔엘씨	연천사업소 생산팀	이영건	5급	2017-09-11
(주)팬택	연미유지보수팀	정현오	사원	2017-10-10
네비엔엘씨(주)	SLAG처리팀	송준태	사원	2017-09-18
당진에이치이(주)	성형설비펠렛팀	김현욱	사원	2017-11-20
삼표기초소재(주)	생산팀 현장	박병준	사원	2017-11-01
	당진SLAG공장 생산팀	김진성	사원	2017-10-10
	천안SLAG공장 생산팀	박현일	사원	2017-10-23
삼표레일웨이(주)	화성사업소(생산)	이용주	사원	2017-09-18
	개별1팀(철도)	선범규	5급	2017-10-16
삼표피앤씨(주)	PC/PILLE공사용	한규경	5급	2017-09-11
	제천공장 생산팀	조덕현	사원	2017-09-15
	제천공장 생산팀	한용선	사원	2017-09-11
	콘크리트기획팀	김현우	5급	2017-11-20
(주)삼표시멘트	회계팀	이예슬	사원	2017-11-09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삼표피앤씨㈜	PC공무팀	김소정	5급	2017-09-11
	PC영업본부	박덕용	상무	2017-11-01
	관리부문	이오식	전무	2017-11-01
	여주공장 관리팀	최유미	5급	2017-11-01
	제천공장 생산팀	김민기	시원	2017-09-20
	제천공장 생산팀	박용현	시원	2017-10-17
	제천공장 생산팀	장진수	시원	2017-10-23
㈜삼표시멘트	경일호	이수호	17기사	2017-11-06
	경일호	전호영	3기사	2017-10-31
	공작개선팀	이석재	부장	2017-11-13
	대양호	박영오	18상사	2017-11-21
	대양호	정부기	17기사	2017-11-29
	세양호	이명수	조리장	2017-12-02
	엔지니어링팀	양민석	차장	2017-11-27
	예비원	박승운	갑판장	2017-12-07
	예비원	오철빛	3기사	2017-12-05
	운영관리팀	심재설	부장	2017-11-13
	월광호	정위진	3항사	2017-11-22
	인력개발팀	임용우	부장	2017-11-13
	자원개발2팀	김재호	대리	2017-11-01
자원개발2팀	박주홍	대리	2017-11-01	
자원개발팀	반종규	부장	2017-11-01	
자원개발팀	한상진	대리	2017-12-11	
자원본부	김영민	고문	2017-12-04	
정진호	염용민	3기사	2017-11-11	
천양호	유성재	기관장	2017-12-07	
원진호	장국진	17기사	2017-11-15	

* 입사 일자 : 2017년 9월 9일~12월 8일

 독자 퀴즈

〈좌삼표산업 환경안전팀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 '제1회 환경안전 표어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표어는?





















✉ 문장을 완성해 2월 20일까지 이메일[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파블로 피카소

 당첨을 축하합니다

(주)경한 하역팀 박순규 대리 (주)네비엔 총무팀 김화진 대리 (주)삼표 D/T팀 변동진 차장
삼표레일웨이(주) PST제천공장 장수은 사원 삼표피앤씨(주) 파일영업팀 이동섭 사원

 신년호 EVENT
채채채, 책을 읽읍시다!

신년을 맞아 사보 편집실에서 추첨을 통해 퀴즈 응모자 중 열 분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8년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사보 편집실에서 응원합니다.

<세븐체인지 - 운명을 바꾼 그녀들의 성공습관> (김정은, 2017)

<세븐체인지>는 유리 천장을 깨고 성공한 여성 CEO들의 성공 원칙을 담은 책이다. 이들이 꼽는 성공 키워드의 머리글자를 따면 'C·H·A·N·G·E·S'가 된다. 무언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껏 살아온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 '변화(Changes)'야말로 성공의 출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침이 될 것이다.

(주)경한 폐차구매팀 옥창환 차장

(주)삼표 법무팀 유아라 사원

(주)삼표 삼표피앤씨SM팀 신현대 과장

삼표기초소재(주) 예산사업소 김지수 사원

(주)삼표산업 RC품질경영팀 황채린 사원

(주)삼표산업 당진영업소 김종수 주임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수연 대리

(주)삼표시멘트 생산1팀 박래훈 대리

(주)삼표시멘트 자원재활용팀 김현진 사원

삼표피앤씨(주) 청주공장 유선엽 대리